

▶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16일 상영작 2편



“ 사랑과 인생의 의미 상실로부터 찾다 ”

-이주 긴 변명-

“ 상실의 슬픔 위로를 전하다 ”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전 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상실로부터 찾은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그린 '이주 긴 변명' 과 상실의 슬픔에 위로를 전하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를 오는 16일 상영한다.

영화 '이주 긴 변명' 은 아내를 잃고도 눈물이 나지 않던 인기 소설가가 자신과 전혀 다른 한 남자와 두 아이를 만나 뒤늦게 '사랑' 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다.

니시카와 미와 감독 자신의 원작 소설 '이주 긴 변명' 을 영화화 한 작품이다. 영화는 절제된 감정이 돋보이는 연출로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담아낸다.

'천공의 별' 의 모토키 마사히로, '쏟아지는 대수사신 시리즈' 의 후카츠 에리, '탑안왕릉의 신부' 의 쿠로키 하루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다.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는 갑작스런 형의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리가 조카 패트릭을 위해 맨체스터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숨겨둔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은 미국 해안 마을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의 아름다운 영상을 담고 있다.

케시 애플렉, 미셸 윌리엄스, 루카스 헤지스 등 유수의 언론과 평단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배우들의 연기를 비롯해 '갱스 오브 뉴욕' 의 각본 및 '유 캔 카운드 온 미' 를 연출한 케네스 로너건 감독 그리고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맷 데이먼이 제작을 맡아 관심을 모은다. 제74회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수상, 제89회 아카데미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등 화제작으로 떠오르는 작품이다. /정해은 기자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식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은 16일 오전 11시40분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정정숙(60·사진)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연다.



신임 정 대표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수연구원 연구행정실장,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소 상근 객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다.

전주시는 "신임 대표이사가 문화관광정책에 대하여 장기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문화재단이 전주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관광으로 확대하는 정책과 사업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발표한 아시아문화심장터 프로젝트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방대한' 소설 '혼불' 완독하기 쉽게

혼불기념사업회, '꽃심소리' 참가자 모집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소설 <혼불> 읽기 프로그램인 '꽃심소리'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작된 '꽃심소리'는 전라북도의 독특한 언어·정서·이야기·소재를 바탕으로 창작된 '혼불'을 함께 읽고 감상평을 나누는 책읽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10권 분량의 대하소설 혼불의 완독을 도우며 혼례·장례·지명·설화·동백꽃·음식·방언·전통놀이 등 각 권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강의는 최명희문학관 이진숙 전문위원이 진행한다.

아름다운 혼불의 문장과 하나 되기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는 잊혀져가는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살피며 '나만의 혼불 어휘 사전'을 만든다. 또 참가자들이 마음에 와 닿은 소설 속 구절을 녹음하는 시간을 마련해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 친근감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주대학교 장미영 교수의 문학특강도 열린다. 장 교수는 혼불과 소통하기란 주제로 '우리는 왜 혼불을 읽어야 하는가?' '혼불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혼불은 원고지 1만 2천매에 이르는 방대한 소설이다. 혼불이 어렵고 바쁘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못한 이들이 이를 통해 소설을 완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총 12차례 실시되는 강연은 오는 24일~7월 21일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오전 10시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문의 063-284-057.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심층 내면구조 · 은밀한 단순 언어의 표현으로 옷칠의 세계 펼쳐다

안덕춘 개인전, 오늘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안덕춘 작가의 개인전 '옷칠'이 오는 15일~20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안 작가의 이번 전시는 평면작업과 입체작업으로 구성되며, 전시작들은 목재를 사용한 목기, 칠기와 건칠작품으로 생활용기가 주를 이룬다.

평면작업은 순수한 오방색을 주조로 한 단색조의 색채를 띠고 있는 칠 그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칠의 평면·입체는 기본적 바탕재료에 천과 종이 등을 붙인 뒤, 그 위에 옷칠을 반복한다. 또한 오방색의 화려함이나 혹은 녹색·갈색·청색조의 색채를 띠고 있는 칠 그림들은 칠의 안료들이 부딪치고 반응하는 양태를 보여준다. 캔버스에 삼베를 붙인 뒤, 그 위에 덧입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특유의 표현 효과를 낸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옷칠의 색채효과는 묵직하고 가라앉아 보이며, 합성칠은 발색이 가벼우나 다양한 편인데 작가는 작품에서 이 두 재료를 적절하게 혼용하고 있다.

안 작가는 한 면에 단색의 색상이나 색분할 뿐 아니라 색분할 위에 자계의 선을 주어 이중적 표현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는 심층 내면구조와 은밀한 단순 언어의 표현방식으로 옷칠의 현대화된 영역 세계를 펼쳐 보인다.

작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가나자와 시립미술공예대학 미술공예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제27회 국전 입선, 제29회 특선 및 동아일보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산업디자인전 초대대디자이너 및 심사위원,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리빙디자인&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14일>

▷쥐띠 4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때이니 부지런히 움직여라.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날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라. 7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84년생: 처음에는 힘든 운이니 후반에는 잘 풀린다.

▷소띠 49년생: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큰 것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운이 막히니 주의하라. 61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73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손을 내밀어라.

▷호랑이띠 50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위험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74년생: 인덕은 바라지 말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86년생: 친구나 동기간과 뜻이 맞지 않으니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토끼띠 51년생: 시소할 실수가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되니 조심하라. 63년생: 금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잠시 놀랄만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혼자는 부부불화에 주의하라. 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말띠 54년생: 좋은일 하고 뽐 받는 격. 6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걱정마라. 7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남성은 이성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90년생: 식욕이 따르니 모임을하거나 식사약속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대립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난관이 생긴다.

▷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때를 기다려라. 68년생: 바쁘지만 하고 바쁘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렵다. 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시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실언으로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충분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취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

▷개띠 46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일시적인 감정에 움직이지 마라. 58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된다. 70년생: 과도한 의욕을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때이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할 때.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